

문화산책

박기복

영화감독



‘K-문화강국’이라는 말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위상도 높아졌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강국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에 이어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 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거머쥐면서 한류 콘텐츠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개천에 용 나느’ 시대도 지났는데 경이로울 따름이다. 자본 논리가 횡횡한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언제까지 라면만 먹고 달린듯 마라톤의 시대는 갔다. 그만큼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궈낸 수성은 그래서 더 값지고 빛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조는 대선 과정에서 밝혔듯이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K-컬처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의 공약이다. 이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정부에서 자행한 문화예산 삭감, 지역 문화 예산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과 대비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기고

오진희

광주지속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팀장



여행은 즐겁다. 평소 허리파 바짝 졸라매고 살다가도 여행지에서 만큼은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도 새로운 여행문화가 필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호주 린슬랜드대 야엔 선 교수팀은 2024년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을 통해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관광산업에서 8.8%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약 4%로 급감했다가 2023년 기준 6.5%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광산업분야 탄소배출량의 75%는 단 20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 여행’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기후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가이드를 동반한 이 여행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주제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이라는 마을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다.

광주에서 출발해 기차를 타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연희동에 도착했다. 비건음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비건 식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제비여행이 시작됐다. 한 끼의 식사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후여행의 의미를 일깨워줬다.

이어서 오랫동안 동네 주민과 함께해 온 마켓과 제과점 등 마을 상점을 둘러봤다. 손때 묻은 흔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랐다. 청년과 주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뿜칠 분야는 독립서점, 작지만 의미 있는 실

문화강국의 기대·지역 문화예술 방향에 대한 제안

문제는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효율성과 효용성이다. 넉넉한 예산 자원이나 속도전 이전에 문화예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때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공모전 심사위원 인력풀(人力pool)과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진들의 전문성이다.

인력풀이란 쉽게 말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심사위원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 분야 콘텐츠를 심사할 정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춰느냐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사위원에 따라 작품의 탄생과 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 작품의 수준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분야 장르에 제대로 된 경험과 실적의 검증 없이 심사에 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작품명 한 줄 써내지 못할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과 결과는 응모자들의 공정성 시비와 불만이 당연히 수반되기 마련이다.

공모전 주체 단체나 조직의 실무진들 또한 콘텐츠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고루고루 분배한들 빈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실질적인 공모 응모자들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심사 시스템 점검과 함께 수정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다.

필자는 K-문화강국의 기대와 희망에 앞서 중앙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고민과 대안에 대한 생각이 앞선다. 지방은 갈수록 소외되고 소멸 진행 중이다. 예산과 인력, 시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창작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소규모 창작자들이 ‘기회 불균형’을 겪고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화 다양성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이 K-문화강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문화예술과 융합한 관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누가 예측했겠는가?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정서를 활용한 콘텐츠가 얼마든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셈이다. 굉장한 소재의 발견이다. 사극이 되어가고 있는 5월 광주항쟁 소재 하나만으로 수백 수천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셈이다.

훌륭한 콘텐츠 하나로 지자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상품으로 가능해졌고 도전에 불 만한 가치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천문화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예상치 않은 곳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과감한 선택과 결정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대부분 한국영화 제작은 처음부터 부침이 심했다. 많게는 7년 이상을 기다린 작품도 있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메이드 인 광주’ 브랜드를 단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의 오마주(존경)를 위한 근사한 작품 한번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고 통쾌하고 우아한 희망인가를 상상한다. 문학, 무용, 미술, 판소리, 오페라, 뮤지컬, 영화, AI, 미디어 아트 등 모든 예술 장르를 융합로에 부어 광주만의 독특하고 대중적이고 작품성 강한 80년 5월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기대해 본다.

느리게 걷고 다르게 보는 여행 시작하자

천을 이어가는 공간들을 찾아 걸었다. 눈길을 끄는 공간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골목과 상점들 사이의 조화,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들 그 자체로 인상 깊었다. 평소라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을 공간들을 가이드가 안내했다. 우리 마을에도 있을 법한 공간인데도 해설이 덧붙여지니 특별하게 다가왔다.

이 여행의 또 다른 특징은 너무나 당연시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자발적으로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여행의 제목이 말해주듯, 우리는 집을 나서서 순간부터 당연하게 텀블러를 챙겼고, 걷기에 좋은 운동화를 신었다. 후시나 하는 마음에 쇼핑을 위해 예코백을 챙겨온 이도 있었다. 준비해온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이 여행 내내 지속됐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은 환경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도 그러한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당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 여행 경험을 계기로, 광주에서도 이 같은 ‘기후여행’이 확산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동선, 특별하게 조성된 관광지나 쇼핑물 중심의 여행을 추구해 왔다. 그러다 보니 광주는 지금까지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었다. 기후여행은 관점을 달리한다. 느림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는 재미, 관계에 중심을 둔다. 오래된 골목,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로컬의 이야기를 담은 거리 문화가 가득하다. 광주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기후여행은

더없이 좋은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여행문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화성시의 공정여행 프로그램 ‘착한 하루’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는 ‘마포만보’, ‘성북공정여행’, 연희동의 ‘제비여행’처럼 구 단위, 마을 단위의 여행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이드가 마을의 이야기, 사람들의 삶을 들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은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을 안에서의 작지만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게 되고, 배움이 있는 여행을 선물 받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경고와 당위만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이제는 바뀌야 한다’는 무거운 말보다는 ‘이렇게 살아도 좋다’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다른 삶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한다. 색다른 장소, 색다른 음식, 색다른 문화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열린 통로가 아닐까 싶다.

광주만의 기후여행을 상상해 보자. 도심을 가로지르는 푸른길, 무등산 자락에 펼쳐진 명품마을을 평촌,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한세봉농업생태공원,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 다양한 사회경제적 공방들과 제로웨이스트 숍, 미식의 도시다운 로컬의 숨은 맛집들, 그리고 5월 광주의 아픈 기억을 담은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까지. 이 모든 장소가 기후여행의 코스가 될 수 있다.

기후여행은 지역의 오래된 공간과 고유한 자원을 재발견하는 대안적인 여행문화이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다. ‘이제는 바뀌야 한다’는 무거운 외침보다 ‘이렇게 살아보니 썩 괜찮다’는 공감의 확장이 필요하다.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불안한 시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몸의 움직임과 즉흥성을 담아낸 ‘액션페인팅’ 등 독특한 화법을 사용했다.

컬렉션 중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 (1949)는 3m가 넘는 대작으로, 예술적 가치가 2000억원에 달한다. 마크 로스코의 초기작인 ‘십자가’도 놓쳐선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 노원문화재단과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열기가 뜨겁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심본 충족해줄 것으로 보인다.

ACC와 재단이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유익한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주길 기대한다.

사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전남에 유치돼야

전남도가 국민의 주권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나섰다.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입지와 역량,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입장문에서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도로서의 역량을 갖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기후에너지부 유치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사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만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중첩적으로 관여하게 돼 있어 기업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주민은 소외되며, 사업 추진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고갈되는 화석 연료 등을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신속 대응하고 산업·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수도로서의 역량을 갖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시는 기후에너지부의 성패를 좌우할 실행 거점이자 최적지다.

실제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이고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와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세계적인 규모의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 특화 대학이 밀집해 있어, 기후에너지부와외의 유기적인 협업 인프라 또한 구축돼 있다.

여기에 전남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나서고 있고 여수산단·묘도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프로젝트와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펼치고 있다. 여러모로 봐도 기후에너지부가 들어설 최적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다.

이상더위·많은 바...예방·선제적 조치 절실

초여름인 6월인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지난 달 28일부터 30도가 넘는 때이른 무더위가 10여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장마마저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다고 한다.

기상청도 최근 여름철 기온전망에서 “보름 평년보다 높아진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며 “특히 6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비까지 예상된다”며 “강수량은 6월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올 여름, 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전남대학교 연못에서는 수온 상승에 민감한 붕어떼가 집단 폐사했다. 지난달 29일 해남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80대 여성이 귀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올해 지역 첫 온열질환자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광주·전남 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 등은 폭염 및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살수차 운영, 무더위 쉼터·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물품 지급 등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도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가동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지하철 역사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광주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전남과 수도권 전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도 폭염대책 기간을 9월 30일까지 정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상청과 협업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무더위와 많은 비가 예고된 올 여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취재수첩

ACC,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 앞장서주길

김다경

문화체육부 기자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다양한 공연 및 전시 등 행사를 선보이며 광주 시민들의 문화 향유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8일 개막해 10월 9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리는 ACC재단 특별전시 ‘뉴욕의 거장들’은 국내 최초의 추상표현주의 집중조명 전시로 별

써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 유대인박물관이 소장한 2000억원대 규모의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작가들은 추상표현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잭슨 폴록을 비롯해 색면 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 최소주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 등 현대미술 거장 21인이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중반 예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추상표현주의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난 회화운동으로, 유럽을 점령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